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주일 성 에브메니오스 주교

(제5조 • 조과 부활 복음 3)
(조과에서 십자가 현양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5조 부활 찬양송	82
십자가 현양 축일 찬양송.....	191
성당 찬양송	
십자가 현양 축일 시기송	191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196
복음경 : 마르코 8,34~9,1	197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 보물

사도 바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나약함은 신자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오히려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자격을 갖추고 설교한다면 아마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자신의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사도들의 나약함을 알고 있다면 소중한 영적 보물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사도에게서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

영혼의 빛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대에 수도 없이, 그러나 현대의 역사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오직 성서를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는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모니터 앞에서 헛되이 보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니터 앞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방황하며 보내는 시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영혼에 유익을 주지는 못하고 되려 해로움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평화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빛으로 밝혀지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물론 철학자 루트피히 포이어바흐는 “먹는 음식이 곧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했

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먹으면, 혹은 인터넷의 진흙탕에서 '헤엄'친다면, 돼지의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려던 쓸모없는 노력을 한 성서의 비유 말씀에 나오는 탕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시리아의 이삭 성인은 “성서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은 영혼에 빛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인은 또한 “당신의 정신과 마음을 성서 봉독에 묶어 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니오스 성인도 “성서에 대한 무지는 우리 구원을 위한 길에 깊은 구멍을 내는 것이며,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배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손에 들고 펼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성서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성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일과 멀어지고 덕을 실천하는 일에 더 자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돌보십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곧,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무질서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확실하지 않고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것도 없으며, 목적이 없는 것도 없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느님은 그것들 중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가장 작은 것 하나도 하느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 성 대 바실리오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고 주관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미리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며,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돌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1베드로 5,7)라고 말한 하느님의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입니다.

- 성 엘리야 민자티오스

하느님의 섭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악으로 인해 갈라진 사람들을, 바른 믿음과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되게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구세주께서는,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요한 11,52)

- 성 막시모스 고백자

당신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오직 자비로우시며 당신을 죄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은혜가 당신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성 막시모스 고백자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든지 또는 앉아있든지 어느 곳에서라도 하느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성 게나디오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 그리스 정교회의 낙태에 관한 결정문

정교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8일 성모 탄생 축일에, 그리스 정교회의 주교 공의회에서는 이 같은 전통과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태에 있는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낙태라는 방법으로 태아를 지울 수 없으며 이는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의로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태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더욱 보살피고 존중해야 합니다.”

■ 고등부, 신데즈모스 가을 수련회

앞서 공지된 바와 같이, 23일부터 25일까지 춘천 성당에서 고등부와 신데즈모스의 가을 수련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WCC 11차 총회 종료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가 종료되었고, 총회에 참석했던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엘레니 조혜원 교우가 귀국했습니다. 총회에서는 회무처리와 에큐메니칼 대화 이외에도 전세계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평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선언문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NCCK가 주도하여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세계교회의 관심을 촉구했고, 관련 행사에 안토니오스 신부가 참여했습니다.

■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추도식

그리스 국방부 차관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와 협력하던 가운데, 지난 7일 경기도 여주에서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 이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가 참석하여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올렸습니다.

부활 교회 (2)

표지 사진 설명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묻힌 곳은 골고타 근처에 있는 동산의 새 무덤이었다.(요한 19,41~42) 그 무덤은 바윗돌을 깎아서 만들었으며 무덤 입구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다. 그 무덤의 주인은 당시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인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었다.(마르코 15,43; 루가 23,50) 그는 예수님을 남모르게 따르던 제자였고(마태오 27,57; 요한 29,38), 동료 니고데모와 함께(요한 19,39)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였다.(마태오 27,58~60; 마르코 15,46; 요한 19,38-40) 예수님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고 경비병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마태오 27,62~66) 그러나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 가 보았더니 굳게 닫혔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마르코 16,1~8; 마태오 28,1~10; 루가 24,1~12; 요한 20,1~10) 이 성스러운 주님의 무덤 위에 부활 성당(사진)이 세워진 것이다.(지난 주일 주보 4면 참조)

해마다 부활절에는 '빛의 의식'이 이곳 부활 성당에서 거행되는데 그리스 정교회의 예루살렘 총대주교가 아르메니아 정교회 사제와 함께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총대주교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불을 촛불에 담아 신자들에게 전해준다.(이는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이다!)

세상의 모든 정교회는 이 빛의 의식을 부활절 자정에 똑같이 거행한다. 성당의 모든 불이 꺼지고 집전 사제는 "와서 지지 않는 빛을 받으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선포하며 촛불의 불을 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인 부활은 기쁨의 원천이다. 주님의 빛은 세상의 어둠을 이기셨다. 진실한 믿음만이 이 빛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 이 빛을 믿는 사람이다.